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19호 현대불교
2009년 2월 18일(음력 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모든 걸 주인공에 놓으면 얽히고설킨 인연줄 다 소멸돼

되는 쪽으로만 붙잡게 됩니다

☞ 저는 아직 마음공부 초보자입니다. 큰스님 가르침 받들어 생활 속의 참선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그 자리, 안 되는 것도 그 자리라 그러는데 그래도 웬지 양면이 다 보이지 않고 되는 쪽으로만 붙잡고 있게 됩니다. 마음자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서지 않아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양면을 다 놓을 수 있겠는지요?

☞ 배울 때는요, 안되는 일도 되는 일도 이거를 다 몽땅 내버려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되는 일도 실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안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안되는 것도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임시켰을 때 이거는 '아하, 요거 벌써 내가 이러는 줄 아는구나!' 이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영락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본래 인간이 쓸 수 있는 작용이 바로 그렇게 무한하게 있는데 자기가 쓸 줄 모를 뿐입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거사님이 아주 가난해서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거긴 차가 없으면 꼼짝 못한다고. 그런데 차를 산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인제는 버리게 생겼는데도 차 살 돈이 없어서 애를 쓰다가 '야!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 맡기거나 하면 된다더라.' 하고선 무조건 팔려고 살았었습니다. 나는 차를 중고차라도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형수가 와서, 차를 다시 구해야 하니 자기가 차를 구하면 그 차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러한 이러한 차를 사고 싶다고요.

그런데 형수가 사려는 차가 또 마땅한 게 없으니 그런 차가 나오게끔도 당신밖에 못한다고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이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여라 하고, 저리로 가라면서 저리로 가고 하는 내가 당신의 종이, 내가 나!' 이러면서 거기다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수가 사를 댈까 적당한 차를 딱 판다고 그러면서 그 차를 주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심기가 웃으면서 '야! 이런 법도 있구나. 자성신이, 내 자신이 정말 으뜸이로구나!' 그러고는 그 체험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나중에는 살림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그렇게 다 맡기고 그렇게 사니까 살림이 윤택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결국. 그래서 이 사람사람이 책만 봐서 글자로, 이론으로 아는 것은 버려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일임시켜 버려라. 그것도 바로 주인이 아는 거고 그 책 읽는 것도 주인이 읽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가진 게 아니다. 이게 주인 거다 한다면, 그 주인이 전체 대공의 진리, 평등진리로서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인공에, 큰 주인공에 그냥 이게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이 몸체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전부 공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무장(武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두를 닦을 때도 항상 그렇게 했답니다. 이것을 나는 전부 먹겠다. 나는 전부 먹을 수 있다. 공알 갱이만한 게, 구두닦이를 하면서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구두를 닦을 때 보면 자기가 눈이 새파래진다는 얘기도, 그게 구두 닦는 게 아니죠. 손을 흑흑 불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구두를 잘못 닦으면 발길로다가 그냥 치어서 저기 나가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 다시 닦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겁니다. 그게, 그만큼 신념이 굳어야 되겠죠.

자기가 자기 능력을 무시하면 자기 몸뚱이가 무시를 당합니다. 아,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자기 몸뚱이가 성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자성불이라는 것은 무한의 능력이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릴 때는 내 손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주인공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한번 생각을 내 보고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모두가 영락없이 돌아갑니다. 이 건 우연, 필자, 무슨 운명 따위, 삼재팔난 무슨 이런 거, 아주 그냥 몰락 지워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모하고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는 얘입니다. 그러나 무한의 능력을 지닌 그 주인공 자리를 확실히 믿고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다 일임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왜 암에 걸리게 된 건지...

☞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벌어먹고 살려니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의 남편은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멀쩡했는데 3개월 전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미 수술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저의 남편이 왜 자기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괴



그림 · 최주현

로워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자니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스님, 왜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건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해야 할 수 없는 생명과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의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나 해서 일으키면 그 의식이 천도 되고 만도 됩니다. 그 의식 하나가 원자에서 입자가 많아지듯, 입자가 화해서 분자가 되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생각 나쁘게 생각을 하면 나쁜 분자들이 그냥 번성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해서 놓으면 좋게 그냥 그 분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원자로부터, 입자로부터 화해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

쁜 분자가 돼 가지고 나가서 세균 같은 거 뭐, 유전 같은 거, 영계성 같은 거 이런 거를 모두 끌고 들어 온다 이겁니다. 끌고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다가도 차에 사고가 나가거나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일을 하러 갔는데 파산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자기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인연들의 그 의식이 자기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안되게 방해할 놓는 거죠. 자기의 인과에 의해서 의식이 몸뚱이 속에 다 들어 있는가 하면 이 털구멍을 통해서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나고 들고, 선으로 생각하면 선으로 나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

게 된 거니까 이게 '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라.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고, 내가 그런 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이제 한마음 한 뜻으로서 내가 내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귀중하구나!' 그걸 알면 귀인이 자꾸 들어와서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공의 그 능력이라는 건 능력의 빛입니다. 빛 속의 세균이라는 것은 끝수의 세균이나 핵맥의 세균이나 이 간의 세균이나 위, 직장 무슨 콩팥 이런 데 세균이, 백혈도 그렇고, 벌써 여기 발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의 능력의 빛이 아주 그냥 정열적으로 그걸 마려해 줍니다.

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채소를 갖다가 길러서 밭에다가 딱 내놔 보세요. 금방 시들어집니다. 죽습니다. 세균도 밭에다가 딱 내놔 보세요.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그 마음의 능력의 빛이 거기까지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혈을 하고 그러면 것도 피가 모두 멈춰지고 아주 그냥 순행이 되죠.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과학을 연구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거를.

마음으로 인해서 행성시킨 거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못된 거를 고쳐야죠. 그러니 이것을 그냥 사랑적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자기 주인공과 거머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하면 벌써 일체 유심, 그 유생 무생이 다 한데 합쳐진 거니까요. 역대 자기 조상까지도, 자기 마음까지도 스승의 마음까지도, 하도못해 개미의 생명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대로 놓는다면 무슨 병을 놓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그 근본 주인공에서 오직 이끌어갈 뿐이니 나는 네게 모든 걸 맡길 뿐이다.' 하는 마음에서 한 치 물려섬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런 마음이어야 주인공의 그 능력의 빛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인연이란 게...

☞ 얼마 전 정부살인을 해 주는 사이트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한 고객이 자신의 아버지

26면으로 계속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 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본원 불교 의식(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본, 본원불교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개강일 : 2009년 3월 4일 오후 6시
2. 출강 : 매주 수요일 · 목요일 오후 6시 ~ 8시
3. 교육내용 : 송주, 도량석,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등 모든 재의식, 바리춤, 나비춤(도량계, 다계작법)
4. 교육기간 : 속성단기 3개월, 장기 6개월
5. 원서접수 : 2009년 3월 3일까지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여권용 4매)
7. 자격요건 : 승려가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또는 사찰(포교원)을 개설하고자하는 자

◆ 특 권 :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하여 승려증을 발급함. 사찰(포교원)을 창건시 등록과 함께 초심자라도 여법히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에(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 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인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초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님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게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남비벽이 심해 빙의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전생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교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진암 선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풍물(사물)강좌 **현원**

풍물은 우리네 조상들이 쇠, 징, 장고, 북등의 악기를 중심으로 춤, 노래, 재담, 사설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연희현대의 대중놀이입니다. 또한 풍물은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로 어우러져 신명나는 풍물놀이 행성되는 전통놀이문화입니다.

이번 개설되는 강좌로 나와 내가 하나 되는 우리의 전통을 불교놀이문화로 승화시켜 새로운 불교전통문화로 이어집니다.

개강 : 3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동산불교회관
강사 : 신유진 풍물예술단장
대상 :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분
내용 : *장구(자진모리(3제) 3개월) : 오전 10시30분 (풍물 본과정 1년) : 오전 10시30분
*북 (난타북 기본 3개월) : 오후 2시 (난타북 본과정 1년) : 오후 2시

전화 : ☎ 02)732-1206

동산불교대학
불교교육 전법도량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